

## 뮤지컬의 이론화, 그 요원한 과제

- 조복행, 『뮤지컬의 상호매체성과 혼종의 미학』(경인문화사, 2014)  
(Theorization of the Musical, the difficult task)

최승연\*

### <차례>

1. 뮤지컬에 이론이 필요한가
2. '뮤지컬은 상호매체적인 것이다'의 의미
3. 뮤지컬의 이론화, 그 요원한 과제

### <국문초록>

조복행의 『뮤지컬의 상호매체성과 혼종의 미학』은 뮤지컬 이론서가 부족한 뮤지컬 출판시장에서 이론서다운 중량감을 보여준다. 기존의 매체이론과 미학이론을 적용하여 뮤지컬의 재매개화, 뮤지컬화 현상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책이다. 그러나 뮤지컬의 상호매체성을 긍정적인 특징으로 상찬하면서도 실제 뮤지컬 현장은 재매개화라는 용어로 비판하며 뮤지컬에 대한 기존의 보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현장 사이의 괴리는 뮤지컬의 이론화가 아직 요원한 과제임을 상기시켜준다.

## 1. 뮤지컬에 이론이 필요한가

나는 이 글을 '뮤지컬에 이론이 필요한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려 한다. 이 질문은 2000년대 이후 뮤지컬이 산업적 활황을 경험한 후 교육이라는 제도 안으로 흡수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것이었다. 전문대학을 위시한 4년제 대학들에서 '뮤지컬과'가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되었으나<sup>1)</sup> 실제로 설치된 뮤지컬과들은 대학의 '현실적 대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마치 '대중음악과'가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던 음대에서 명칭만 바꾸어 달고 탄생했던 이전 시대처럼, '뮤지컬과'는 클래식 음악 전공자들의 현실적 대응으로 응답되거나 연극학과에서 파생되어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기능인을 육성하는 과로 탄생했다. 이는 결국 뮤지컬과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과의 존재기반인 한국 뮤지컬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콘텐츠의 로컬, 글로벌 그리고 글로벌적 흐름에 대해 진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별반 갖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 졸업했다.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은 애초부터 뮤지컬과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로써 대학의 뮤지컬과는 '뮤지컬학(學)'이 아닌 '뮤지컬원(院)'으로 굴절되어 갔다.

그러므로 뮤지컬과에서 뮤지컬 이론은 논의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뮤지컬 역사가 서양에 비해 매우 짧고, 서양의 경우 역시 진지한 뮤지컬 이론서들은 1990년대 후반 즈음 출판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국내의 뮤지컬 이론은 불모지에 가까웠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의 뮤지컬 관련 서적을 조사하면 더 명백해진다. 현재까지 출판된 뮤지컬 서적은 몇 가지 경향으로 나뉘는데, 가장 많은 출판 건수

1)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여 개의 대학에 뮤지컬학과 내지는 연극학과와 세부전공으로 뮤지컬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를 보이고 있는 경향부터 개론서, 가이드북, 역사서, 제작기, 실기서, 이론서, 평론집 등으로 정리된다. 개론서는 1997년에 출판된 박용재의 『뮤지컬 감상법』(대원사)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개정·출판된 역사 『뮤지컬-기획, 제작, 공연의 모든 것』<sup>2)</sup>까지 약 13권에 달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뮤지컬 제작이 활발해지고 뮤지컬이 연극장과 분리될 움직임을 보이자 뮤지컬 개론서가 발 빠르게 출간되었고 그 이후 뮤지컬 시장의 확대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이드북이 뒤를 잇는다. 뮤지컬 가이드북은 ‘여행 가이드북’과 동일한 출판 목적을 갖는다. 즉, 뮤지컬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저자의 관점으로 쉽게 설명한 책들이 이에 포함된다. 런던과 뉴욕에서 뮤지컬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하는 『런던에서 Musical 보기』(우일출판사 편집부, 우일, 2007), 『뮤지컬 앤 더 시티』(윤경미, 시공사, 2008)가 대표적인 책들이다. 가장 최근에 출판된 김형중의 『우리 시대 최고의 뮤지컬 22』(다음생각, 2014)까지 뮤지컬 애호가들의 대중 가이드를 향한 열정은 지속되고 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역사서, 제작기, 실기서는 비슷한 비중으로 출판 경향을 이끌고 있는데, 이 중 역사서는 서양과 한국의 뮤지컬 역사를 다룬 중량감 있는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양 뮤지컬 역사를 정리한 역사인 『뮤지컬의 역사』(A. J. 러너, 안정모역, 다라, 2004), 『150년 뮤지컬의 역사』(앤드루 램, 정영목 역, 풀빛, 2004)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그 역사와 이론』(정진수, 연극과인간, 2009), 『뮤지컬 이야기-흥미진진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100년사』(이수진·조용신, 숲, 2009),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뮤지컬까지-서양 음악극의 역사』(김광선, 연극과인간, 2009)가 일제히 출간되었으며 한국 뮤지컬의 시작과 그 전개양상을 다룬 『한국 뮤지컬의 세계-전통과 혁신』(유인경, 연극과인간, 2009) 역시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 한국 뮤지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던 시점<sup>3)</sup>에 집단적으로 출현한 한국의 뮤지컬 역사서들은,

2) 이 책은 정재철, 정명주 공역으로 미메시스에서 출판되었다. 2001년에 초판된 이후 2007년, 2015년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자체로 뮤지컬이 이제 ‘정리되어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예그린악단 시절부터 극작과 연출, 실무를 겸했던 박만규가 집필한 『한국 뮤지컬사』(한울, 2011)의 출간으로 한국 뮤지컬 제작 및 공연에 대한 실증적인 정리 작업이 한층 구체화되었지만, 역사적 정황들에 대한 필자의 해석보다 단편적인 정보 나열로 그친 것은 이 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보인다. 뮤지컬 제작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제작자인 설도윤과 박명성의 자서전 형식의 저서들<sup>4)</sup>이 대표적이며, 실기서로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연출법과 발성법이 주로 출판되다가 최근 이계창에 의해 『뮤지컬 배우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브로드웨이 배우들의 뮤지컬 교과서』<sup>5)</sup>가 번역, 출간됨으로써 뮤지컬 배우의 탄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전반적인 훈련방법과 실제적 응용이 소개되었다.

역사서를 제외한 위와 같은 출판 경향은 뮤지컬이 고급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어딘가에서 대중의 취향을 패셔너블한 것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뮤지컬은 뉴욕과 런던(그리고 이제는 서울을 포함함)이라는 메트로폴리탄 문화의 대표적 산업이며 이를 즐길 줄 아는 대중은 문화적 세련됨과 우월함을 갖추게 된다는 관념이 내면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뮤지컬은 이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라기보

3) 한국의 뮤지컬 시장은 <오페라의 유령>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한 당시 140억 원에서 출발하여 2006년 1043억 원, 2007년 1639억 원, 2008년 205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2527억 원, 2015년 현재 3000억 원 시장을 지나 다소 침체기로 접어들었다(2010년까지의 수치는 허은영, 「공연물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31면 참조). 뮤지컬 역사서 출간은 뮤지컬 시장이 급성장하던 2009년에 쏠려 있다.

4) 설도윤, 『오페라의 유령, 가면을 벗다-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모든 것』, 숲, 2005. 박명성, 『뮤지컬 드림-맘마미아, 아이다, 댄싱 새도우 프로듀서 박명성의 뮤지컬 인생』, 북하우스 2009; 박명성, 『세상에 없는 무대를 만들다-뮤지컬 신화 박명성, 열정과 도전의 공연기획 노트』, 북하우스 2012.

5) 이 책의 원 제목은 *Acting in Musical Theatre*이다. 신신내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인 로코 달 베라와 라이트 주립 대학교 뮤지컬학과장인 조 디어의 공저를 뮤지컬 배우이면서 용인대학교 뮤지컬-실용음악과 교수인 이계창이 번역하였다.

다, 미래의 유망한 문화산업으로 소개되거나 소유되어야 할 취향으로 개념화되었다. 뮤지컬과에서 배출되는 뮤지컬 배우 지망생들은, 따라서 ‘뮤지컬이 무엇이고 어떻게 국내외의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지’와 같은 고민을 삭제한 채 우선 근사한 미래 산업 속으로 ‘어떻게 하면 흡수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존재들로 자라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문서 출간은 뮤지컬을 둘러싼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과잉된 관심의 표명처럼 비취질 여지가 있었다. 그러므로 『뮤지컬의 상호매체성과 혼종의 미학』이라는 제목을 단 저서의 출간은 ‘뮤지컬은 학문적으로 이론화 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표명하면서 기존의 출판 경향에서 매우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 ‘뮤지컬은 상호매체적인 것이다’의 의미

그러나 이 책은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행일 앞뒤로 『뮤지컬의 사회학』<sup>6)</sup>과 『로봇, 뮤지컬을 만나다』<sup>7)</sup>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뮤지컬의 사회학』은 중앙일보 기자 최민우가 한국 뮤지컬 시장의 독특한 생리를 제작사-배우-팬의 역학관계로 풀어놓은 책이다. 그리고 『로봇, 뮤지컬을 만나다』는 뮤지컬 무대의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이문서 계열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저서들과 조복행의 저서까지 고려하면, 근래 뮤지컬 논의에 점차 이론적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미학적, 사회학적, 예술-과학의 융복합적 관점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도 조복행의 저서는 뮤지컬에 기존의 매체 이론과 미학이론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론서다운 무게감

을 갖고 있다.

이 책은 총 7장과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1장은 ‘뮤지컬은 드라마’라는 이 책의 입론을, 오페라가 드라마인가 아닌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서두는 책 전체에서 두 가지 맥락으로 뻗어나가는데, 1) 문학 대신 드라마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오페라 대신 총체극을 주장한 바그너를 논의의 바탕으로 둔다는 점, 2) 뮤지컬의 매체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페라를 비교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특히 2)번은 이 책의 모든 장이 서술되는 지렛대와 같이 활용된다. 가령, 1장만 하더라도 오페라의 드라마성에 대한 논의는, 뮤지컬은 드라마이며, 오페라가 음악을 중심에 놓는 매체 불균형적 장르인데 반해 뮤지컬은 각 매체가 균형적으로 결합되는 장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자는 ‘뮤지컬의 다매체성’을 의미화 하기 위해 오페라의 보수적 성향을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책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핵심 주장으로 발전된다. 이 책의 핵심은 뮤지컬과 상호매체성을 논의하는 7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장부터 6장까지의 장들은 7장의 논리가 만들어지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다. 뮤지컬의 봄을 이야기하는 2장과 매체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고 있는 3장(매체의 물질성), 4장(매체순수성), 그리고 뮤지컬의 탄생을 매체의 결합-저자는 이를 ‘혼종성’이라고 명명한다.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5장, 그리고 감각적 장르로서의 뮤지컬을 논의하는 6장 전체는 이후 뮤지컬의 다매체성을 분석하는 7장으로 통합된다. 7장의 내용에 가장 근접하는 6장의 핵심은 “뮤지컬은 중첩되고 통합된 매체들이 다차원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자의 이론은 결국 “뮤지컬은 혼종적인 장르이면서 상업성을 추구하는 장르이고 사회비판적 기능보다는 대중들의 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오락적 기능이 강한 장르다.”<sup>8)</sup>라는 6장의 결론을 이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뮤지컬을 향한

6) 최민우, 『뮤지컬 사회학-뮤지컬을 보는 새로운 시선』, 이문, 2014.

7) 지은숙, 『로봇, 뮤지컬을 만나다』, 휴먼큐브, 2014.

기존의 시각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마살 맥루헌의 미디어 이론을 필두로 다양한 매체이론을 적용시켜 뮤지컬을 이론화한 결론이기 때문에 뮤지컬에 대한 비판적이고 보수적인 관념을 더 공고하게 옹호하는 면이 있다. 저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공연예술 장에서 뮤지컬 혹은 뮤지컬적 공연물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뮤지컬의 ‘재매개화’ 혹은 ‘뮤지컬화’ 현상으로 명명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결과, 뮤지컬의 다매체성이 관객의 감각을 복합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뮤지컬은 평이하고 단순한 드라마에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적으로 결합된 장르라는 명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보다 더 허무한 결론은 없을 것이다. 이보다 뮤지컬의 재매개화 혹은 뮤지컬화 현상이 미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관점과 맥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초국가적 대중문화의 장 안에서 논의되었다면, 그 원인과 미래적 전망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정리되었을 것이다. 뮤지컬에 매체이론을 적용하여 그 미학적 틀을 도출하는 것은 결국 뮤지컬의 장르적 특징을 밝히는 것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어서, 위와 같은 허무한 결론에 도달할 운명을 애초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 저서의 핵심인 7장과 맺는말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7장에서 저자는 뮤지컬의 다매체성을 논의하기 위해 뮤지컬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다. 뮤지컬의 구성요소인 복과 넘버, 매체의 자립과 고립, 다매체성과 뮤지컬의 통합이론, 뮤지컬에서 음악/무용/대사의 관계, 테크놀로지, 상호매체성의 효과 등이 그 내용이다. 논의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뮤지컬은 매체 간 균형을 잃지 않아 ‘매체의 자립’이 이루어진 장르이고(그 반면에 오페라는 음악에 다른 요소들이 종속되는 ‘매체의 고립’을 견인하는 장르이다), 이러한 균형감각은 오페라와 달리 음악, 대사, 무용, 테크놀로지 사이의 균형적 조합을 유지하여 새로운 다감

각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열린 창작정신을 구현한다. 그러나 맺는말에서 저자는 이러한 상찬을 바로 거두고 다음과 같은 언급을 이어간다.

뮤지컬이 우리에게 도입되고 50여년이 흘렀고 지금은 우리 공연계를 좌지우지하는 장르가 되었다. 뮤지컬 붐이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과도하게 뮤지컬에 경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 뒷받침된다. 뮤지컬의 공연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 서고 있다. 가히 뮤지컬 전성시대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장르들, 순수예술과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들이 취약해지고 대중들의 취향이 다양화하지 못하고 특정한 방향만을 지향하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다.<sup>9)</sup>

만약 저자가 뮤지컬의 재매개화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면, 다매체성을 창조적 정신과 연동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뮤지컬의 다매체성을 의미화하기 위해 오페라가 보이는 ‘매체의 고립’ 현상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역시 취약해 보인다. 저자가 호명하고 있는 매체의 자립과 고립 현상은 일반화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뮤지컬 역시 경우에 따라 음악이 모든 요소의 우위에 놓이는 스타일로 탄생되기도 하고 또 논자에 따라서는 뮤지컬과 오페라가 근본적으로 음악의 제국주의적 특징으로 유지되는 장르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반론에 대해 송스루(Song-through) 뮤지컬을 예로 들어, “하나의 매체가 다른 매체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동종의 매체가 매체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변주를 하는 매체의 결합방식”<sup>10)</sup>을 보인다고 말한다. 즉, 여러 매체가 혼합되어 혼란스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뮤지컬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배적인 매체가 견고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송스루 뮤지컬이라는 것이다.<sup>11)</sup> 그러나 이와 같은

8) 조복행, 『뮤지컬의 상호매체성과 혼종의 미학』, 경인문화사, 2014, 198면.

9) 조복행, 위의 책, 316면.

10) 위의 책, 249면.

설명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비단 송스루 뮤지컬뿐만 아니라, 뮤지컬은 근본적으로 음악의 힘으로 유지되는 장르라는 불변의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연극이나 여타 영상예술 장르에 비해 뮤지컬에서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다소 허약한 드라마가 허용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점은 뮤지컬의 스타일에 따라 긍정적인 차원의 다매체성을 논의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 3. 뮤지컬의 이론화, 그 요원한 과제

다시 앞의 질문으로 되돌아 가보자. 뮤지컬에 이론이 필요한가. 단언하건데, 뮤지컬에는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본격화 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뮤지컬은 이제 지난 50년이라는 시간 속에 축적된, ‘해석되어야 할’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다. 뮤지컬의 이론화란 이러한 1차 자료들을 맥락화, 추상화, 일반화하여 미래적 전망 속에 연동시키는 작업을 지향해야 한다. 2015년 현재 한국 뮤지컬장의 글로벌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창작 뮤지컬은 역사와 고전에 대한 거대담론을 벗어난 자리에서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고찰은 세대론과 글로벌리즘, 혹은 글로벌리즘이 입체적으로 적용된 곳에서 마련될 수 있다. 이는 즉, 전 시대와는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조복행의 『뮤지컬의 상호매체성과 혼종의 미학』은 거꾸로 우리에게 ‘뮤지컬의 미학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남긴다.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위와 같은 뮤지컬장의 새로운 물결들을 조망할 때 어떠한 전망을

제공하는가 하는 질문을 연이어 낳는다. 실제로 이 저서는 상호매체성과 혼종의 미학을 논의하는 본론보다, 저자가 MBC 미주법인 사장을 역임하면서 경험했던 국내외 공연시장의 현황과 한계를 논의하는 맺는말이 훨씬 설득력을 갖고 있다. 물론 맺는말에도 여전히 국내 시장의 미시적, 거시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빠져 있지만 시장의 현황과 한계점에 정확한 분석은 차후에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뮤지컬의 미학과 현장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으로 상호 연동이 가능한 테마인지 고찰하게 만든다. 여전히 우리에게 뮤지컬의 이론화 작업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책이 던져 주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박명성, 『뮤지컬 드림-맘미아, 아이다, 댄싱 새도우 프로듀서 박명성의 뮤지컬 인생』, 북하우스 2009.
- \_\_\_\_\_, 『세상에 없는 무대를 만들다-뮤지컬 신화 박명성, 열정과 도전의 공연 기획 노트』, 북하우스 2012.
- 설도윤, 『오페라의 유령, 가면을 벗다-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모든 것』, 숲, 2005.
- 지은숙, 『로봇, 뮤지컬을 만나다』, 휴먼큐브, 2014.
- 최민우, 『뮤지컬 사회학-뮤지컬을 보는 새로운 시선』, 이론, 2014.

##### 2. 논문

- 허은영, 「공연물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11) 저자는 이를 ‘동일매체성’이라고 호명한다.